

이지바이오, 마니커 인수효과 상당

우리증권, 축산사업 수직계열화·대형화 ... 브랜드 없는 약점도 보완

이지바이오시스템의 마니커 인수 결정은 축산업 수직 계열화와 대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리투자증권이 평가했다.

이지바이오시스템은 6월16일 닭고기 생산기업 마니커 한형석 전 회장의 지분 20.1%(940만5300주)를 349억원에 인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.

김나연 연구원은 “이지바이오시스템이 마니커를 인수함으로써 국내 육계시장 2위로 올라서게 된 것은 물론 이미 곡물, 사료, 양돈, 양계, 육가공 사업을 영위하며 축산업 수직 계열화와 대형화를 추진중인 이지바이오의 사업 다각화에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평가했다.

또 “2010년 성화식품 지분 70%를 인수하면서 돼지 중심의 육계 시장에 진출했고, 현재 나주에 대형 도계장 설비를 증설중이나 B2C(기업-소비자 거래)를 위한 자체 브랜드가 없다는 것이 사업상 약점이었다”고 지적했다.

김나연 연구원은 “마니커는 도계장이 경기도 동두천과 용인에 있어 수도권 공급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, 국내 1위 육계기업인 하림의 도계 냉각방식인 <에어쿨링> 시스템을 도입한 대형 도계장에 브랜드까지 더해지게 돼 시장 침투율이 빠르게 상승할 것”이라고 예상했다.

우리투자증권은 투자 의견이나 목표주가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06/17>